환상적인 골방인생

(눅16:14-18)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환상적인 골방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골방인생이라는 것은 골방 안에서 인생을 끝낸다는 얘깁니다.
인생을 끝낸다는 이야기는 인생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모든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 그것을 골방 안에서 끝낸다는 얘깁니다.
골방 밖으로 발을 내놓기 전에, 골방 바깥에 있는 인간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골방 안에서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다 얻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골방인생인데, 이것이 환상적이라는 이야깁니다.

여러분,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뜻하고자 했던 의도와 의미는 여러 가지 언어나 다른 표현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 대우그룹의 회장이셨던 김우중 씨가 쓰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세계가 넓다고 하는 말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만, 실지로 틀에 박힌 인생의 길에만 묶여있지 말고, 넓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보면 아직도 개척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많은 영역과 많은 길들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 낼 용기를 가지고 넓은 세계로 시야를 열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지요, 이 책에서 뜻하신 그 의도가.
그게 뭡니까?
틈새시장이라는 말, 훨씬 더 경영학적이고 전문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만 하여간 ‘세계는 넓다’라는 말의 동어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멋지게 표현하려면 ‘블루오션’, 레드오션에 반대되는 블루오션, 다 같은 의도의 말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인생의 패러다임,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개척하고, 용기를 갖고 넓은 세계로 뛰어들고 한다는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게 난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그랜트 대통령의 일본원조의 일환으로 일본에 와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사 역할도 하시다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일본청년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Boys be ambitious!’입니다.
저는 이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적 사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무얼 선교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고 한다면 ‘Boys be ambitious!’ 같은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늙은 정치인들도 ambitious 해가지고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ambitious가 웬 말입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be ambitious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ambitious가 전혀 불필요

한 마음의 상태가 골방 안에서 돼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될 지도 모를 만큼 골방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다 끝장나버리는 것, 환상적인 골방인생, 이게 바로 선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지 않은 이 본문이 절절마다 굉장히 가파르게 논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논리가 발전된다는 것은 단계 단계가 잘게 설정이 되어서 좀 스무드하게 진전되지를 않고 거칠고 가파르게 논리가 전개되어서, 이 말씀 다음에 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논리를 전개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돈의 철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돌고 도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철학을 피력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하는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 주님께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다'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곧바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이야기 끝에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곧바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연결이 언뜻 머릿속에 명쾌하게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나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나라라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나라로 침입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앞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신 주님께서 뜬금없이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주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더 쉬운 일이다'
그래놓고 또 전혀 연결이 떠오르지 않는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일단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나라 복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칭구조로 보면 좋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나라 복음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구절에 대칭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나으리라'
하나님나라 복음을 가운데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율법의 한 점 한 획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앞으로 가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반대편 대칭으로는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느냐?
돈을 좋아한다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뒤에 왜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셨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돈을 버는 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이 많은 대상이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가닿은 곳이 돈이라는 얘깁니다.
좋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가닿은 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음식 중에서 무얼 제일 좋아합니까, 하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먼저 가닿아 있는 메뉴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제일 먼저 돈에 가닿아서 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알려지면, 그 하나님과 율법은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돈에 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제일 좋은 돈을 버는 방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나라를 침입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돈을 벌어서 생기는 기쁨이 있고 돈을 벌어서 생기는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나라로 침입해서 얻게 된다는 얘깁니다.

돈 때문에 생긴 기쁨, 돈 때문에 생긴 안정감, 돈 때문에 생긴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이 옳다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돈의 힘에 의해 많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마음에 행복이 생기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의도로 돈을 주신다, 해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킬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 모든 것을 하나님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돈을 얻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라, 너희가 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돈 벌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하나님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해라'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골방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세상은 넓지만 그 넓은 세상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김우중 씨는 말대로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발로 뛰면서 당신이 대우라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우중 씨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틈새시장을 찾아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돈 벌고 행복하려 할 필요 없이, 이미 인간 세상 안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골방 안에서, 김우중 씨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굴지의 기업을 일궈서 얻으려고 했던 그 행복을 골방에서 다 이루라 이 얘깁니다.
환상적인 겁니다, 환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일은 골방에서도 가능하고, 버스 안에서도 가능하고, 누구와 얘기하는 것을 끝내고 나 혼자 하나님나라로 내 마음이 침입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고 살기 전에, 아침에 눈 뜨고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인간 세상을 살기 전에, 골방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라는 건, 인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골방 안에서 다 이루라는 얘깁니다.

율법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 김우중 씨의 책도 돈 벌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라는 얘긴데, 이 책 전체가 율법책입니다.
5천만 원으로 5년 동안 10억 만들기, 이게 다 율법책입니다, 돈에 이르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율법책이에요.
이 세상 내에서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율법책입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돈 버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관하신다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돈 벌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나라에 침입해서, 너희가 돈을 벌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 하늘나라를 침입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 하늘나라를 침입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골방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마음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침입합니다.
하늘나라에 침입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아버지가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돈이 줄 수 없는 환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눈뜨고 발 딛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침입해 들어간 자들에게 왜 다시 율법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루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거짓증거 하겠습니까, 누가 살인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재산을 탐하겠습니까?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돈 버는 자리에 도달하려고 했고, 축복받는 자리에 도달하려고 한 겁니다.
교회 충성하라는 것도 목사님들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 의도로.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달리 얻고 싶은 게 없을 만큼 하늘나라로 침입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떠억 하니 발을 딛고 나왔는데, 도대체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것도 하나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에요, 부부, 배우자에요.
골방에서 하늘나라로 마음이 침입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고 느끼고 나서, 기쁨 충만, 만족 충만, 행복 충만으로 눈뜨고 세상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시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래요.
아, 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다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대로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풍습과 관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 여자랑 살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과 그 주변사람들이 들을 때 숨통을 꽉 조여 버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맞아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여자들을 평생 같이 살라는 얘기냐, 차라리 그럴 바엔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그 지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반발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지금 남편의 엄마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교묘한 돌파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게 열 번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열 번 다시 태어나도 처음의 그 여자와 같이 살라는 말씀과 똑같다 이겁니다.
답답해 죽는 겁니다, 아니 목이 콱 졸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골방에서 마음이 하나님나라로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마음이 환상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차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처음 나왔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납니다.
흠투성이에요, 단점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나라에 침입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단점투성이고, 아무리 바가지를 강렬하게 긁는 아내라도 절대 하늘나라로 침입해 생긴 행복감을 감할 수 없고, 그 여자가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예쁜 새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는 음식도 잘하고 바가지도 안 긁고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기쁨을 더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점이 많고 모자라 보이고 못 생겼어도, 그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아도 조금도 불행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마누라 만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라 이거예요.
하늘나라 침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만족하게 되면 아무리 메주덩어리 같은 아내라도 아무런 불행의 이유, 불만족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양귀비 같이 예쁜 아내가 옆에 있어

도 그 아내가 내 기쁨을 더해 줄 수 없으니까, 한 여자 만났으면 끝까지 그 여자와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 번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열 번 다 처음 여자와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행복과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침입해 들어갑니까?
첫째, 골방에 들어가자.
둘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업 걱정 빚 걱정, 많지요? 그것 다 제쳐놓고.
그건 다 인간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일단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성령님 오시도록 기다려가지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지켜지고, 마누라 상태 어떻든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고, 빚이 산더미 같아도 일단 그 산더미 같은 빚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적이라는 거죠.

이 환상적인 골방인생,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완성하시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환상적인 골방인생,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걷는 중에 완성하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